



## 유로존, 실업률 격차 확대

이혜은 연구원

- 유로존의 실업률이 지난 1998년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 14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, 독일의 실업률은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국가 간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.
  - 유럽연합 통계청은 지난 해 12월 현재 유로존 17개국의 실업자 수는 전월대비 2만 명 증가한 1,650만 명으로 실업률이 10.4%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    - 스페인(22.9%), 그리스(19.2%), 리투아니아(15.3%) 등의 순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으며, 오스트리아(4.1%), 네덜란드(4.9%)가 유로존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함.
    - 유럽 재정위기로 각국이 긴축재정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 내 소비는 물론 해외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고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- 반면, 독일은 1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.1%p 하락한 6.7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.
    - 1월 실업자 수는 3만 4,000명 감소한 285만 명으로 이는 전문가 예상치(1만 명 감소)보다 크게 감소했으며,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임.
-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긴축 정책을 펴는데다 경제성장률도 낮아 앞으로 실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  - EU는 실업자 문제가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자 지난 1월 30일 정상회의에서 고용에 초점을 맞춘 성장대책을 내놓았지만, 전문가들은 재정이 극도로 긴축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음.
  - 반면에 독일의 고용시장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독일 실업률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. 독일 경제 또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나은 모습을 계속 보일 것임.

(FT, Reuters 등, 1/31)